

제5회 한글 백일장



날짜 : 2008년 4월 12일 장소 : LA 카운티 식물원

제5회 한글 백일장 입상자 명단

성인부 : 장원(안현정) 차상(최용완, 김영규) 차하(김영선, 윤여준)

학생부 : 장원(김아린) 차상(김해린, 유다은) 차하(한창숙, 유하은)

2008년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카운티 식물원에
서 제 5회 백일장이 열렸다. 작년과 같이 ‘코리안 가든 페스티벌’의 일
환으로 백일장도 동참했다. 이날의 시제는 “나무”와 “우리 집”이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와 코리안 가든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이 행사는
‘가족백일장’ 외에도 ‘어린이 미술 사생대회’와 전통혼례, 다도 시범
및 라디오 공개 생방송, 음악 공연, 코리안 가든 기금모금 활동 등으
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백일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부와 학생부로 나눠 심사했다. 성
인부 장원과 차상 입상은 등단으로 인정해 입상자는 문인으로 예우,
문인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성인부(장원)

꽃나무가 봄을 만나다

안현정

겨울을 지나
봄을 만난 나무
이름 모를 새들을
품고 품는다

아름다운 바람 소리에
익숙해져 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새는 깃을 튼다



한국 출생. 2살 때 이민. 현재 대학생. LA 거주.

연두색 잎은 돋고
연분홍 꽃이 줄지어 따라와
봄은 파안대소한다

타오르는 사랑도
결정적인 절정에
저렇게 저렇게
꽃나무와
새의
사랑 이야기
봄이 올 적마다

성인부(차상)

나무

최용완

나무가 살아서 산과 들이 숨을 쉰다
봄바람 지나다 겨울 잠을 깨워
벗겨진 몸 부끄러워 새 옷을 입는다

둥치는 발을 땅에 굳게 딛고 서서
두 팔 들어 하늘을 받쳐 올려
철 타고 몸살하며 나이테에 감는다

뿌리는 옛 세월을 흙 속에 감추어
흘러가는 구름에 귀기울여 함께 웃는다
속태워 눈물 짓는다



전남 순천출생.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 남대문 중수공사 설계사.
문교부 문화재 전문위원, 오하이오주 건축설계사무소장, 오하이오주 민
주평통 지회장, 데이튼 한인회 회장 및 이사장 등 역임.
다수의 설계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 및 공로상 수상. 저서 『한국건
축문화사』, 『새로운 눈에 보이는 세계』.

성인부(차상)

우리 집

김영규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집을 샀다. 난 예금통장을 털고, 남편은 자기 할머니가 남겨주고 간 증권을 팔아서 같이 다운페이를 했다. 그리고 남은 돈을 합해 보니 에스프로 크로징할 비용이 겨우 되었다.

남편이 독신 때 쓰던 몇 가지 가구와 짝짝이 식기 도구, 내가 마련한 몇 가지 소품이 우리 살림의 전부였다. 이 살림을 챙겨서 이사를 와보니 오픈 하우스 때 그리고 인스펙션 할 때 예쁜 가구 등, 러그로 운치 있게 정리되었던 그 집은 텅 빈, 먼지로 덮힌 집으로 변해 있었다.



1973년 도미. 1985년 UCLA 언어학과 졸
2002년 전문 번역 일 시작
2005년 거주법정통역사 자격증 취득.
현재 프리랜스 통.번역사.

이사 오던 날 우리의 지갑에는 단돈 1달러의 지폐도 없었다. 월급날도 되지 않아서 빈털털이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다. 다행히 남편의 짐 중에는 동전이 가득히 담긴 상당히 큰 알루미늄 팝콘통이 있었다.

동전을 가지고 다니기가 성가스러워서 길에 가다가 노숙자들이 있으면 한웅큼 집어서 건네주기도 하고, 또 그래도 남은 동전은 지난 10여 년간 이 팝콘통에 던져놓았던 것이 이제 가득 찬 것이다. 이 귀찮아서 던져놓은 동전들이 이렇게 긴요하게 쓰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사한 그 날은 상당히 더웠다. 우선 그 팝콘통에 동전을 몇 웅큼씩 쥐어들고 근처의 리퀴스토아로 갔다. 간이냉장고 용으로 스타일로 품으로 된 아이스 박스와 얼음, 음료수 등을 산 후, 인근 은행에 가서 동전 마는 종이를 잔뜩 얻어왔다.

미처 마루질도 다 못 끝낸 마루에 앉아서 동전을 말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나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팝콘통은 여전히 가득했다. 내 마음도 팝콘 모양 부풀러올랐다.

그날 밤, 우린 집주인이 되었다는 흥분감에 잠이 오질 않았다. 천정에 달린 선풍기 밑의 침대에서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남편과 나는 꿈을 펼쳤다. 그리고 그 꿈은 잠 속에서도 이어졌다.

시댁에서 쓰던 중고가구들로 텅 빈 집을 채운 지가 어느새 11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세월의 흐름 따라 우리 집에는 두 식구가 더 늘었다. 더불어 Guinea Pig와 거북이도 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장난감

등, 잡동사니들이 무지하게 쌓였다.

그 동전들은 일주일을 넘게 필요할 때마다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백 달러가 넘었던 것 같다. 이 팝콘통과 집은 그동안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마치 랩스터가 성장하면서 옛 껍질을 벗고 새 껍질을 입듯이 불어난 우리 가족도 이제 새 집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학생부(장원)

우리 집

김 아이린

(Willow Elementary School 2학년)

우리 집은 녹색 집이다.
색깔도 녹색이고 나무들이 많아서 더욱 녹색이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둘,
나 그리고 개 두 마리, 식구가 많다.
항상 시끄럽다.
언니들은 음악 듣고, 춤추고,
아빠랑 엄마랑 나는 농구 놀이를 한다.
뒷마당엔 꽃나무 식구도 많지만
뒷산에서 다람쥐, 파랑새, 너구리, 산토끼들이 내려와 논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막대기를 소쿠리에 세우고 줄을 달아 새를 잡는 것을 알려주셨다.
나는 줄을 잡고 기다렸지만 하루종일 한 마리 새도 못 잡았다.
나는 우리 집을 사랑한다.
우리 집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학생부(차상)

우리 집

김해린

(Cleveland High School 10학년)

우리 집 앞마당에는 커다란 소나무 세 그루가 둥그랗게 사이좋게 서 있다. 노스릿지 지진이 난 후, 이곳에 이사 왔을 땐 그냥 큰 한 그루의 소나무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식구들은 세 그루의 큰 소나무들이 사이좋게 어울려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이곳에 이사 온 후, 내 막내 여동생이 태어난 후였다.

부모님께서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셋째 딸을 갖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내 생각엔 어머니께서 늦은 나이에 내 동생을 갖게 된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기억 때문이신 것 같다. 언니와 내 동생은 12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말이다.

우리 세 자매는 나이 차이가 서로 많듯이 개성도 취미도 무척 다르다. 하지만 결국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뜻을 같이 하는 좋은 세 자매이다.

미술대학을 간 언니가 어느 날, 앞마당에 있는 소나무 세 그루를 그

리면서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는 연한 녹색 이파리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 우리 세 자매도 힘든 일 잘 견디고 서로 사랑해서 세 그루 소나무 못지않게 멋진 세 자매가 되자고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우리에게 사랑의 물을 주시듯이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건강하고 멋진 둘째딸이 될 것이다.

우리 집 앞마당에 우뚝 솟아 있는 세 그루의 소나무들처럼.

학생부(차상)

나뭇잎 아기의 여행

유다은

(Monte Vista Elementary School 4학년)

언제 졌나 모르게
분홍, 어여쁜 아기
연두빛 옷 입고
살포시 얼굴 내민다

풍성한 초록색 옷으로
사람들을 쉬게 한다
소풍 온 아이들의 땀을
닦아준다

고운 색동옷 입고
사람들을 반겨준다
나들이 온 아이들과
악수한다

아, 이제 하늘로 올라가네
구름들이 환히 맞아준다
어...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나
하얀 옷 입혀 돌려보내신다

하얀 옷 벗고
연두빛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제 시원한 물 맘껏 마시면서
예쁜 아기로 다시 태어나겠지